

투데이 칼럼

금남호남정맥의 시작에 서다

조선시대 우리 조상들은 산 경표에 근거를 두고 산줄기 체계를 잡았다. 하나의 대간(大幹)과 하나의 정간(政幹), 그리고 이로부터 가지를 치고 있는 정맥(政脈)이 13개가 있다. 하지만 현재 남한에는 9개의 정맥만이 위치하고 있으며, 10대 강의 유역을 가름하는 분수령들을 기본 정맥으로 삼고 있어 대부분의 산맥 이름이 강 이름과 관련되어 있다.

금남호남정맥은 북쪽 사면에서 장수의 천천(天川)이 시작되어 401km 금강을 이루고, 남쪽 사면에서는 임실의 오원천(烏院川)이 시작되어 225km의 섬진강을 이룬다. 연결된 주요 산은 수분현, 팔공산, 성수산, 마이산, 부귀산 등이 있고 그 길이가 약 65km로 13개의 정맥 중 가장 짧지만, 이 산줄기는 서쪽은 해안 평야 지대로, 동쪽은 남원을 중심으로 호남지방을 동서로 갈라놓아 현격히 다른 생활 문화권을 형성하게 되었다. 그 금남호남정맥의 산 중 오늘 얘기하고 싶은 산은 영취산이다.

전국에 8개의 영취산이 있는데 매년 봄마다 진달래가 수 놓는 여

수 영취산, 낙동정맥에 위치하고 역대로 유명한 영남의 영취산 등이 있다. 하지만 이곳 전북 장수군에 위치한 영취산은 이렇다 할 인지도나 유명세가 있진 않다. 그럼 예도 오늘 말 하고 싶은 산이 영취산인 이유는 화자가 느낀 영취산의 매력을 많은 이들과 나누고 함께하고 싶어서이다. 영취산은 경상남도 서상면과 전라북도 장수군 번암면에 있는 경계에 위치하고 있는 산으로 백두대간에서 금남·호남정맥으로 갈라지는 분기점이 되는 위치에 있는 산이다. 이러한 연유로 '대동여지도'에서는 백운산보다 영취산이 더 뚜렷하고 중요하게 나타내며

'신중동국여지승람'에도 영취산이 장수의 진산으로 표기되어 있다. 영취산의 유래는 석가모니가 설법을 전한 인도의 영취산과 산 모양이 흡사하여 영취산이란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 영취산에 오르기 시작하고 오르막과 계단으로 힘이 부쳤다. 오르는데 이유가 있다고 혼자 왜 뇌이며 불만에 가득한 생각으로 울랐다. 30분 쯤 산행을 했을가 생각보다 정상이 가까웠다. 정상에 올라 허리를 펴고 앞을 보는 순간 왜 이곳이 유명하지 않은 산일까? 라는 생

각으로 올라오며 불만 가득했던 자신이 부끄러웠다. 영취산. 영취하다. 높고 가파르며 푸르다 말 그대로 높고 가파르며 푸르렀다. 바람, 하늘, 날씨 모든 것이 좋았고 행복했다. 작고 유명세 없는 이 산이 나에게 주는 의미는 강렬했다. '시작은 미약했으나 끝은 창대하라' 라는 말처럼 정맥 중 가장 작은 정맥인 금남호남정맥의 시작점으로 끝은 호남지방을 나눠 아주 다른 생활 문화권을 형성하는 것처럼 구조대원으로 1년이 지난이 시점에 내게 큰 의미를 주었다. 작고 보잘 것 없어 보이는 것들이 결국 중요한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때 순간 작은 것이라도 최선을 다해 중요한 단 하나의 생명이라도 지켜 낼 수 있는 구조대원이 되도록 때 순간 최선을 다하리라 다짐했다. 끝으로 모두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백두대간처럼 강하고 굳건한 의지로 하나로 뭉쳐 함께 한다면, 살을 에는 추위도 눈 녹듯 녹아 눈부시게 푸르른 녹색빛의 녹음이 찾아오듯 그렇게 좋은 날이 찾아올 것이라 본다.



이 형 구

무진정소방서 119구조대

사설

클럽 집단 감염사태의 불똥이 튀고 있다

서울의 클럽 코로나 집단 감염 사태가 심각하다. 사람들의 느슨해진 정신태도를 욕되는 정도를 넘어서 두려움을 주고 있다. 엇그제 낮에만 해도 클럽 감염자가 86명이라고 했는데 저녁 때 그 숫자가 94명으로 불어나 버렸다. 그러더니 어제는 102명으로 불어나 버렸다. 다시는 코로나 확산이 없기를 바랐는데 통탄할 일이다. 용인의 한 젊은이가 이태원에 있는 문제의 클럽에 출입해 많은 병원균을 퍼뜨린 이후 다른 클럽에서도 새로운 확진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는 통렬하게 반성해야 한다. 서울시는 허를 찔러도 크게 쫓았다. 서울시의 반성은 잠깐에 찔린 것 같은 통증이 되어야 마땅하다. 박원순 시장을 비롯해 당국의 모든 이들이 그동안 잘해왔다. 하지만 황금 연휴 기간에 발생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부랴부랴 행정 명령을 내려 유흥업소의 영업 행위를 중지시켰지만 이미 열거된 지점들이다. 클럽에 출입한 젊은이들 중에는 허위로 이름과 전화번호를 기재한 경우가 적지 않다는데 정년 폭풍 할 일이다.

정부는 그동안 생활 속 거리두기를 당부했었다. 그대 대부분의 국민들은 오랜 기간 숨 죽이면서 조심하면서 거리두기를 실천해왔다. 그 덕분에 코로나가 차츰 진정되었다. 이제 좀 숨을 제대로 쉴 수 있을 모양이라고 기대했는데 이태원에서 다시 집단 발병하는 사태가 벌어졌으니 분노를 참을 수 없다. 황금연휴 기간과 어린이날에 다 른데도 아니고 꼭 클럽에 갔어야 했을까. 새로운 확진 환자 발생으로 학생들의 등교가 다시 연기되는 등 일상화가 무기한 연기되게 생겼는데 이 막대한 피해를 어찌 해야 한다 말인가. 세상이 어떻게 되든 맡든 내만 즐기면 된다는 정신 태도는 곤란하다. 클럽에서 춤추고 놀았던 행위는 국민에 대한 배신 행위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그 월부자들이 도 내에도 다수 있었다는 게 드러났다. 김제에서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던 이도 그중 한 명인데 그는 지금 확진자가 되었다. 전북도와 방역 당국 관계자들은 자심해야 한다. 클럽에 다녀온 젊은이들을 끝까지 찾아내 혹시 모를 불행에 미연에 막아야 한다는 주문이다.

고용 안정 지속적으로 도모해야 한다

고용 안정을 지속적으로 도모해야 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지역경제가 더욱 불안정해졌다며 핑계를 대서는 안된다. 청년 실업률이 심각해 이 것은 지역 사회의 골칫거리가 아닐 수 없다. 고용률 최저라는 성적표가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는데 전북도와 지역사회가 마음을 두어야겠다. 전국 최하위 고용률이라는 이 부끄러운 기록이 과연 언제까지 갈지 난감하다. 청년고용 활성화에 관심을 갖고 대책을 강구해야 할 이유는 뚜렷하다. 호남통계청이 때때마다 발표한 고용동향을 보면 난감할 뿐이다. 전북도는 먼저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지역 인재 고용의 사례를 많이 보여줘야겠다. 지역의 고용 열기가 식어 미지근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청년실업률이 높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분위기가 조용하니 별 일이다. 미취업 젊은이들의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 감각이 둔한 탓이지 싶다.

전북도는 고용 열기를 더 달구어야 한다. 물론 시군 지자체와 모든 공공기관들도 지역인재 고용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힘들었다지만 낮은 수준의 일자리마저 즐기고 있는 현실이 답답하다. 고용 현실이 전국에서도 밀바다 수준이라는 지적은 괜한 것이 아니다. 전북도와 각 지자체는 청년 고용의 현장을 총체적으로 보아야 한다. 청년 고용의 속내를 진지하게 들여다 보아야 한다는 이야기다. 거듭 말하거니와 청년 고용 문제는 손 놓고 있을 일이 아니다. 그리고 한두 번 개선을 모색해보고 그만 둘 것도 아니다. 일자리 창출이며 고용 실적이 낮은데도 고민을 하지 않는 것은 그 모양이 안 좋다. 일자리 창출이며 청년 고용은 전북도의 진정성이 관건이다. 그리고 공공기업들의 협조도 필수적이다. 전북도와 각 시군 지자체는 포스트 코로나 19를 위해서라도 진전된 모습을 보여야겠다.

독자제언

'생활 속 거리두기' 개인방역 수칙

세계적으로 확산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그동안 전 국민이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동참해 왔다. 1월 20일 첫 확진자 이후 2월 중순에는 일일 900여명에 이르던 확진자 수도 국민들의 높은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일일 한 자리수 확진자 발생으로 줄어들었다. 이에 정부에서는 5월 6일부터는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함을 발표하였다. 지금은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있지만, 위험을 감수하고도 사회적 비용과 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한 어쩔 수 없는 대책이란 생각이 든다.

이럴 때일수록 국민들도 긴장을 늦추지 말고 "생활 속 거리두기" 개인 방역 5대 핵심수칙을 잘 인식하고 따라야 한다. 첫 번째 수칙으로는 아프면 3~4일 집에서 쉬어야 한다. 코로나19는 증상이 가벼운 초기에도 전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열이 나타나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대한 줄여야 혹시 모를 전파를 차단할 수 있다. 두 번째,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두 팔 간격의 충분한 거리를 유지한다. 생활 속 거리두기로 어느 정도 일상생활이 가능해졌지만 대화, 기침, 재채기

등을 통해 언제든지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간격은 2m 이상 거리를 두는 것이 좋다. 세 번째, 손을 자주 꼼꼼히 씻고, 기침할 때 옷소매로 가려야 한다. 오염된 손을 거쳐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오는 것을 막고, 기침 예절을 지켜 침방울을 통한 전파를 최소화해야한다. 네 번째, 매일 2번 이상 환기하고 주기적으로 소독을 한다. 환기를 통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들어있는 침방울의 공기 중 농도를 낮출 수 있고, 바이러스가 포함된 침방울이 물을 수 있는 곳(손잡이, 전화기, 마우스 등)을

소독하면 손을 통한 코로나19의 감염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마지막 수칙은 "거리가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하기" 코로나19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있어야 극복할 수 있다. 도어지는 않더라도 가족, 가까운 사람들과 자주 연락하는 등 마음으로 함께 할 기회를 만든다. 전 세계적으로 높이 평가되는 대한민국의 대응! 지금까지 잘해왔듯이 앞으로도 절대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전 국민이 방역수칙을 잘 지켜 이 감염병 전쟁에서 꼭 승리했으면 한다. 화이팅!

이시원 남원경찰서 수사과유치관리팀 순경

전주매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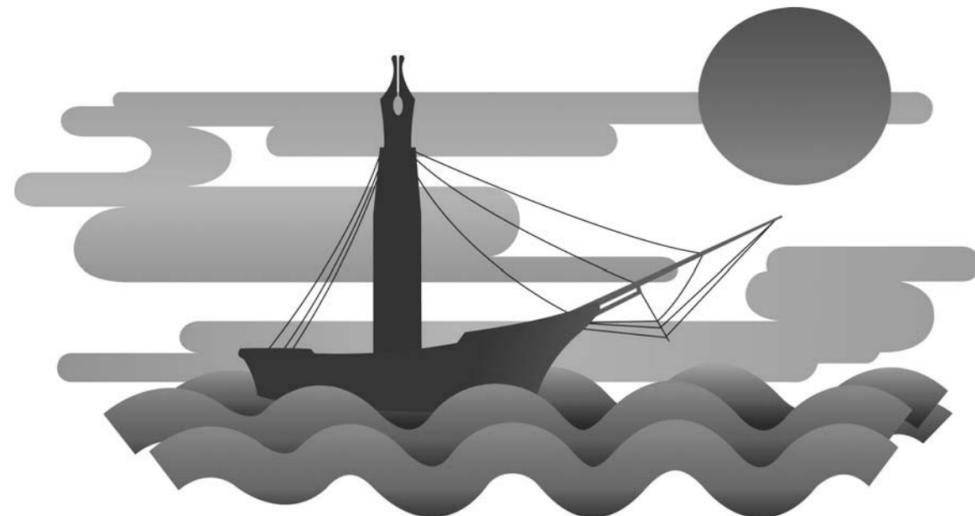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승주빌딩 4층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